

홈페이지 기획(안)

소풍벤처스

기본 기획

- 단순명료, 미니멀한 최소 & 최적기능
- 건설에 드는 시간 최소화
- 중요 기능 ->
기사 노출을 위한 페이지라 그를 위한 기본 기능 필요
> 무엇보다 한글 기반 장문 콘텐츠가 떴을 때
깔끔, 명료하게 보이도록 구성 필요 (자간, 가로길이, 글넘어감)
> 잘 아시겠지만 영문 (기능) 기반의 홈페이지와 별도 구성
- >메인 탭뉴스로 기사 보내는 기능 등 설정 필요
(카테고리별 탭뉴스 설정 + 많이 읽은 기사 등)
- 게시자는 소품으로 통일할 것이므로 별도 바이라인, 글쓴이X

페이지1 – 랜딩페이지

- 현재 소풍의 BI 무드와 통일성 있게
- 랜딩페이지에 바로 TOP 콘텐츠가 나오면 됨
- 기본 레이아웃은 콘텐츠 기반 (언론사) 형식
- 그러나 랜딩페이지 이후는 본문 OR 게시판 연결로
- 언론사 방식으로 모든 콘텐츠를 개별 페이지로 운영할 서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게시판은 5개~ 7개 대주제 – 소주제 형식 (늘이고 줄이는 것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 중요 랜딩페이지(탑 기사 설정 등)를 관리하고, 언론사 맞춤형 한글 콘텐츠 수정 포맷은 필수 필요
- 소풍벤처스 홈페이지 내 ‘뉴스’ 페이지 콘텐츠 흐름과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홈페이지 콘텐츠와 비교
- 모바일 배력 기능 필수

메인(랜딩페이지) 예시

소풍슬로건 - sopoong (클릭하면 sopoong.net 으로 이동 기능 필요)

소풍 PI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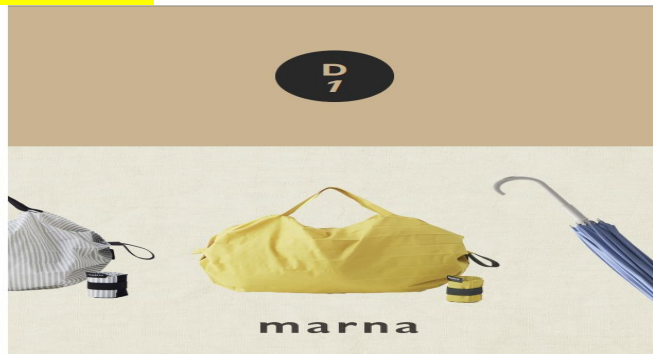


이미지 삽입 기능 필요
가로 길게/ 페이지 스크롤 따라오게

크라이치즈버거 : “비효율이 우리의 무기다” 토종 햄버거의 13년 성장 법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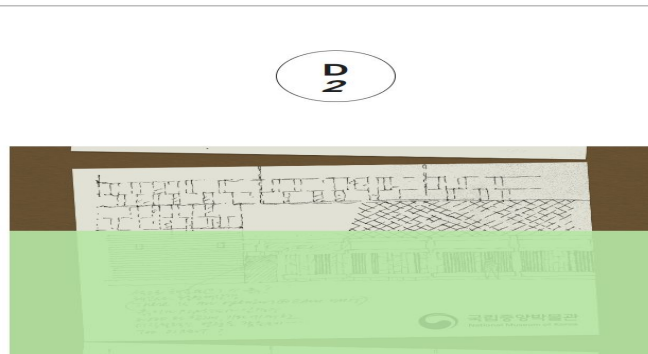
롱블랙 프렌즈 K 엄숙한 분위기의 타운홀 미팅. 무거운 공기를 뚫고 양손에 햄버거 봉투를 든 사람이 나타나요. 머리에 ‘우는 얼굴의 인형탈’을 쓰고서요. 이어 그 ●

카테고리명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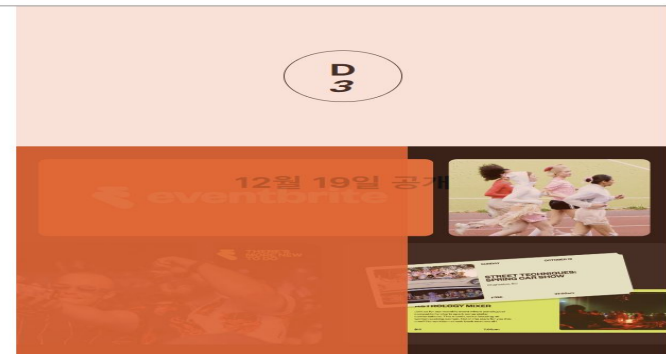
마나 : 일상 속 ‘어쩔 수 없지’를 파고드는 생활용품 브랜드

롱블랙 | C



박승홍 : 국립중앙박물관을 지은 건축가, 그 안에 잠든 이야기를 꺼내다

심영규 | K



이벤트 브라이트 : 매출 9할 잃은 행사 플랫폼, 살기 위해 찾은 제4의 공간

롱블랙 | L

하단 회사정보 안내문, 저작권 표기 등 란

소풍슬로건

메뉴 이름 수정 기능 필요함
소풍 홈페이지만 파란색으로

소풍 PICK

썸네일
(예시보다 썸네일 작게)

예시는 썸네일 사진 >>
콘텐츠 요약
소풍콘텐츠 페이지는
썸네일 <<<<< 콘텐츠 요약

- 제목 크게
- 작은 글씨로 요약 3~4줄
- 크기: 사진 << 요약 콘텐츠
- 시간/비용 소요 많을 경우 전체 큰 이미지로
> 썸네일 자체제작 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가능
(논의)

카테고리명2

사진

콘텐츠 요약

사진

콘텐츠 요약

사진

콘텐츠 요약

3~4개 정도 하단 꼭 차게
발행자 이름은 기본 모두 "소풍"
추후를 위해 변경 기능 필요

카테고리명3

카테고리명 3은 비용 차이 현저할시 생략, 아닐 시 게시판 목록 방식으로 노출

소풍 현 홈페이지와 동일한 하단 회사정보
AI 학습용 정보 수집, 활용을 거부합니다.

상단바는 렌딩 페이지와 동일

추천 아티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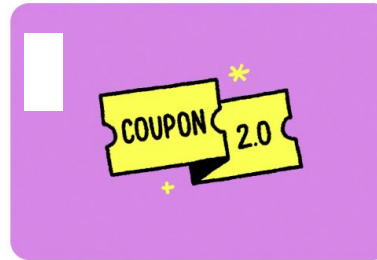
<- 카테고리명(메뉴명) 노출



라이프

요즘 사람들의 경제 매거진 <더 머니이슈>, 지금 읽어야 하는 이유

2025.12.19



뉴스

전국민 1인당 10만 원!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하세요

2025.09.22



라이프

나는 나에게 다정한 번역가가 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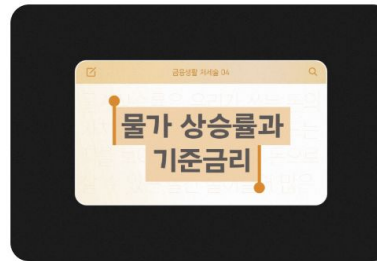
2025.12.03



뉴스

작년보다 카드값 많이 나왔다면? 상생페이백으로 최대 30만원 환급 받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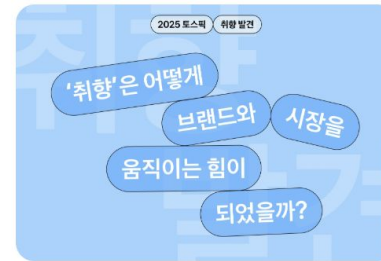
2025.10.24



라이프

기준금리를 내리면 물가와 주식은 어떻게 움직일까?

2025.10.31



라이브러리, 라이프

'취향'은 어떻게 브랜드와 시장을 움직이는 힘이 되었을까?

2025.10.29

<1> (페이지 목록)

소비를 줄이면 삶이 평온해질까?

🕒 2023.12.14 · ✍️ 주소은 · 🕒 11분



마음이 평안해야 덜 쓰고, 덜 쓰면 한 줌 더 평온해지는 삶에 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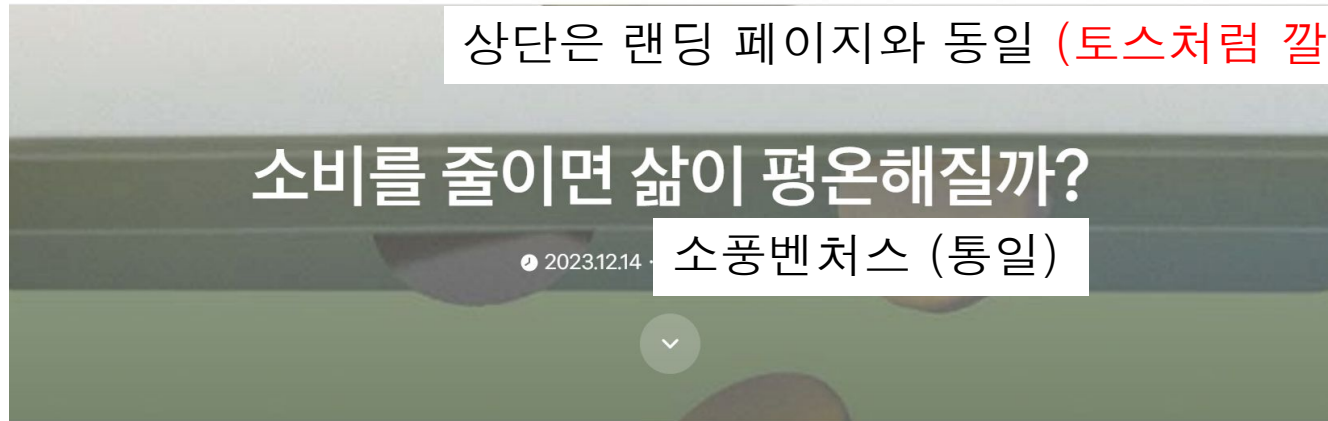
휴가와 이사가 동시에 다가오면서 지갑에 구멍이 났습니다. 돈을 쓰는 감각이 무뎌져 카드 내역서를 볼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라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소비의 바다에서 성난 파도만 만나는 것 같은 이 시기에, 카드 한도 초과 위기를 넘기고 꾸준히 소비 단식을 실천한 뒤 《소비단식 일기》를 펴낸 서박하 작가를 만났습니다. 사실 '꾸준히'라고 하기에는 소비의 바다에 휩쓸린 방향 썰을 아주 많이 들어버렸지만요. 코인 투자가 잘 돼서 소비 단식 멈췄다가 큰일 났던 대목에서는 웃어도 되는지 잠시 작가님 얼굴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포기하지 않았고, 조금씩 변했다는 점이에요. 그는 '내가 왜 자꾸 과한 수준까지 소비하는지' 마음을 살폈고, 이전보다 덜 쓰는 습관도 몸에 익혔고, 그러자 자본주의와의 거리감을 느끼며 삶이 한없이 가벼워졌다고 말합니다. 당장 오늘부터 안 쓰기만 하면 되는 소비 단식이야말로 아무것도 공부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해볼 수 있는 가장 쉬운 재테크라고도요.

소비 단식의 끝은 결국 예산 내에서 적절히 쓰는 생활 리듬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렇게 아낀 돈을 저축하며 투자나 노후 대비 등 원하는 인생 목표를 이뤄가는 것이기에, 여전히 스스로 작은 미션들을 주고 매일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서박하 작가의 소비 단식 여정과 팁을 소개합니다.

상단은 랜딩 페이지와 동일 (토스처럼 깔끔한 느낌, 검색 기능x)



콘텐츠 레이아웃 레퍼런스: 중앙일보, 롱블랙, 토스(피드)

제목 이미지는 소풍 bi에 맞는 느낌으로 고정(매번첨부x)

마음이 평안해야 덜 쓰고, 덜 쓰면 한 줌 더 평온해지는 삶에 관하여

휴가와 이사가 동시에 다가오면서 지갑에 구멍이 났습니다. 돈을 쓰는 감각이 무뎌져 카드 내역서를 볼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라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소비의 바다에서 성난 파도만 만나는 것 같은 이 시기에, 카드 한도 초과 위기를 넘기고 꾸준히 소비 단식을 실천한 뒤 《소비단식 일기》를 펴낸 서박하 작가를 만났습니다. 사실 '꾸준히'라고 하기에는 소비의 바다에 휩쓸린 방향 썰을 아주 많이 들어버렸지만요. 코인 투자가 잘 돼서 소비 단식 멈췄다가 큰일 났던 대목에서는 웃어도 되는지 잠시 작가님 얼굴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포기하지 않았고, 조금씩 변했다는 점이에요. 그는 '내가 왜 자꾸 과한 수준까지 소비하는지' 마음을 살폈고, 이전보다 덜 쓰는 습관도 몸에 익혔고, 그러자 자본주의와의 거리감을 느끼며 삶이 한없이 가벼워졌다고 말합니다. 당장 오늘부터 안 쓰기만 하면 되는 소비 단식이야말로 아무것도 공부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해볼 수 있는 가장 쉬운 재테크라고도요.

소비 단식의 끝은 결국 예산 내에서 적절히 쓰는 생활 리듬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렇게 아낀 돈을 저축하며 투자나 노후 대비 등 원하는 인생 목표를 이뤄가는 것이기에, 여전히 스스로 작은 미션들을 주고 매일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서박하 작가의 소비 단식 여정과 팁을 소개합니다.

잘못된 사례 예시입니다.

한글 콘텐츠 정렬 어그러짐, 중구난방 x

한글 콘텐츠 자간, 띄어쓰기, 줄 이어짐 시 간격 등 조정 필요

↓아래 캡처처럼 정렬 어그러지지 않아야합니다.

현재 홈페이지에서 별도 개발하는 가장 큰 이유

이 수업을 이끄는 이혜림 교사는 “다양한 에듀테크 프로그램 덕분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영어수업을 만들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날 수업에서는 캔바를 사용했지만, 이 교사는 수업의 목적과 상황에 따라 ‘옥토스튜디오’, ‘애니케이티드 드로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택해 사용한다. 그가 에듀테크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나라 영어 학습의 고질적인 문제가 문제는 풀 줄 아는데, 자신감 있게 말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책을 읽고 단어를 외우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든 캐릭터를 설명하면서 모르는 단어를 찾도록 하는 방식으로 영어를 즐겁고 가깝게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데 에듀테크 프로그램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교사는 올해부터 3·4학년 영어 전담 교사를 맡게 됐지만 ‘안양·과천 에듀테크 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학교 안팎을 가리지 않고 여전히 AI 디지털 교육 전도에 몰두하고 있다. 이미 에듀테크를 수업에 잘 접목시키는 교사로 정평이 났다. 청계초 내에 디지털 활용 수업 사례를 공유하는 ‘온라인 교무실’을 만들고, 챗GPT 등 유료 프로그램을 구비하는 데 힘쓰는 등 적극적으로 수업에 에듀테크를 활용해왔다.

이 교사는 “요즘 학생들은 애초에 ‘디지털 신인류’라고 할 정도로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술에 익숙한 세대”라며 “옛날엔 풀, 가위, 종이가 흥미를 유발하고, 다양하고 창의적 수업을 하는 데 쓸 수 있는 유일한 도구였다면, 지금은 그게 AI·디지털 도구로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잘못된 사례 예시입니다.

“기후테크 2.0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KDB 산업은행 넥스트라운드가 소풍벤처스와 함께 기후테크 스페셜라운

현재 소풍 콘텐츠 페이지

줄바꿈이 제대로 반영 안돼 콘텐츠가 끊어짐

자간이 지나치게 좁음, 글자 크기 작음 (기본 설정임)

사진 설명 첨부 기능 없음 (소풍홈페이지->콘텐츠서
읽을수있음)



기후테크, 가파른 성장세

이날 기조연설을 진행한 한상엽 소풍벤처스 대표는 “세계 경제의 변화 등 여러 리스크 속에서도 기후테크 분야는 투자의 ‘주류’이자 ‘대세’가 돼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그 예로 “올해 미국 나

에 달하는 등 다른 투자 수익률을 압도하고 있고, 소풍이 투자한 기후테크 기업들도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소풍벤처스는 국내에서 가장 먼저 기후테크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투자해 온 투자사다. 국내 투자사 중 가장 많은 기후테크 분야 포트폴리오사 숫자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이런 성과를 인정 받아 중 이 같은 투자를 이끌어온 한 대표는 국내 정책적 환경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기후에너지부가 출범해 컨트롤타워도 만들어진 데다 올해 말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신설될 예정 한 대표에 따르면 이미 기후테크의 수익성은 주류 자본시장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실제 최근 약 5년간 국내 신규 상장기업의 약 1/4가 기후테크 관련 기업이며, 주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영역인 친환경 (조선), 에너지, 배터리 등도 기후테크가 이끄는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

이 성장의 바탕에 있다. 한상엽 대표는 “이제는 주류 시장에서 기후테크가 이끄는 성장을 비상장자, 대체투자, 시장이 따라가야 할 정도”라고 했다.

사진 설명 기능의 예시입니다.



서울 종로 대로변의 임대 문구가 붙은 상가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 사진 설명

그림 파일을 본문에 삽입 시 설정하도록 돼있습니다.

백단 필요 기능 목록 - 콘텐츠 제작용

1. 블로그 형식 문서 입력기능

- 색깔, 이모티콘, 줄바꿈 등 네이버 블로그
- 그림 삽입 및 사진 설명 기능
- 링크 삽입, 이모티콘, 썸네일
- 한글 콘텐츠에 적합한 글 레이아웃 꼭 필요합니다

(단순 워드프레스 제작시 어그러잡니다)

>콘텐츠 상태 : 작성 중, 수정 중, 출고 완료, 보류, 예약 출고

>작성자 이름 : 현재로선 소풍벤처스 고정

추후 별도 비용으로 수정 가능하다면 현재는 소풍으로만 고정으로 개발해도 됩니다.

2. 외부 노출을 위한 기능

- 썸네일 (썸네일 크기 조정 등)
- 요약 (메인 노출에 반영) - 3줄(메인pick) 1줄(카테고리 내)
- Seo 검색 최적화, 구글 검색 노출
- 노출 카테고리 (복수) 지정, 메인 pick 고정 기능

백단 필요 기능 목록 - 콘텐츠 제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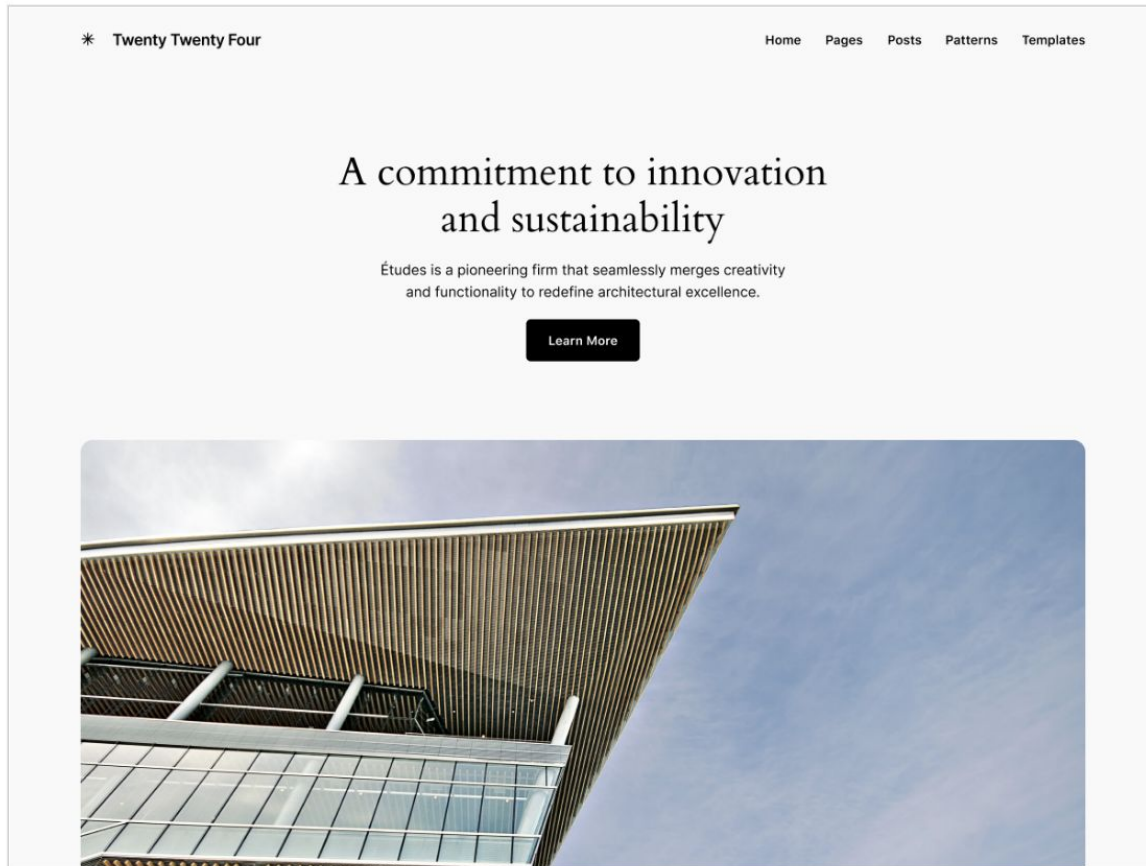
1. 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능

- 카테고리명 / 메뉴명 수정 기능
- 랜딩페이지 슬로건 바 수정 (소풍 슬로건, 한글만 수정 가능해도 됩니다)

2. 현재로서 불필요한 기능

회원관리, 등급 -> 관리자 아이디 한 개만 부여
많이 본 콘텐츠 등

그 외 논의점



<- 이걸 워드프레스 홈페이지 개발 페이지에 나오는
뉴욕타임즈 스타일 블로그인데요, 이런 형식도 괜찮습니다.
(가령 현재 제안 방식 개발이 복잡하다면
이 방식을 메인으로 하고
그 외 콘텐츠 썸네일 3개 정도 밑에 보여주는 식으로도 가능)

현재로서 디자인은 개발 시 편의를 위해 지정해 드리는 것으로
완전히 제안에 열려 있습니다.
개발이 가장 빠르게 될 수 있는 방식으로
랜딩페이지도 제안해주셔도 됩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글 콘텐츠가 잘 읽히는 페이지” 입니다.